

2022-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 에세이 참가 신청서

인적 사항				
소속	사범대학/교육학과	학번		비고
이름	나**	연락처		

공모 주제	나. 수업 외 대학생활을 통한 성공적 학습경험			
제목	힘찬 첫 걸음. 도약의 시작	활동명	학습 코칭	

① 활동 내용: 활동 참여 계기, 구체적인 활동 과정 등

3월 2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학생이 되었다. 넓은 캠퍼스, 곳곳에 뭉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대학생이 된 나. 학교 셔틀버스 정류장 위치를 몰랐던 나는 입학 후 한 주 동안 그 높은 사범대를 걸어 올라다녔다. 지금의 나라면 절대 못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때의 나는 그 언덕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수업을 들으러 가는 그 길이 그저 설렘 뿐이었다.

하지만 너무 설레발을 쳤던 탓일까. 나의 대학 생활의 시작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늘 보던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냈고, 내가 낮을 가린다는 사실을 대학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똑딱거리고 있었고 또, 몰랐던 나의 빈틈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질책했다. 그렇게 공부 외의 것에 모든 신경을 쏟게 되었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후 2.98, 전체 20명 중 18등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내 밑 석차의 2명은 수능을 다시 준비하던 친구들이었으니 사실상 나는 학과 꼴등이었다. 이후에 학점이 3.02로 정정되었지만 학과 꼴등인 것은 다름없었다.

학창 시절 늘 꿈이 없던 내가 처음으로 품게 된 꿈, 교사. 교육학과에서 교사가 되려면 복수전공을 꼭 해야 하는데 3.02라는 내 학점은 매우 불안한 성적이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2학기가 되자 뭐 노력하다가 안 되면 '교육 행정공무원이나 회사원이자' 라며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사가 되지 못한 삶을 상상하면 할수록 교사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다. 나는 그 순간 다짐했다. 복수전공에 안정적인 학점을 꼭 만들겠다고.

그러던 중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못 할 것이 없었고, 그렇게 학습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활동이 시작되고 교수님께서 나의 학습 환경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입학 후 갑자기 달라진 환경의 영향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낮은 성적을 받았지만 지금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했기에 공부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답했다.

이후 교수님은 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지 물으셨고, 나는 '특정 교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복수전공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안정적인 학점이 필요하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교수님이 또다시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물으셨다. 나는 한 치의 고민 없이 솔솔 답할 수 있었다. 학창 시절 선생님 한 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분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 닮고 싶다는 생각에 교사를 꿈꾸게 되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교수님께서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럼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으셨고, 나는 '공부해서 학점을 올려야죠' 라고 말했다. 그렇게 정말 순식간에 확실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졌다.

이후에 본격적인 학습 코칭이 이루어졌는데 나의 가장 주된 문제는 집중력과 실천력 부족이었다. 교수님은 상담을 통해 내가 공부에 집중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반복해서 상기시켜주시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셨다. 또, 복습과 예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간단하게라도 배울 내용과 배운 내용을 훑어보라고 이야기하셨다. 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학습법, 학습플래너를 활용한 학습법 등 다양한 학습법과 함께 과목 특성에 따른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려주셨다.

② 활동 후 자신의 변화: 학업 성과, 자기 계발 등 개인 성취 내용, 수상 경험 등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공부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다. 이번 2학기 때 그때와 제법 비슷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다. 1학기 때는 미루고 미루다가 공부하였고, 하다가 그냥 포기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학점을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는 학습량을 다 끝내지 못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마쳤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닌 진정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하였다.

나는 매주 플래너를 활용하여 해야 할 것들을 적어놓기 시작했다. 또, 아이패드보다는 종이를 보는 것이 눈에 피로가 덜해 오래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모든 수업의 자료를 인쇄하여 공부하였다. 또 형광펜을 활용하여 밑줄을 치며 교재를 예습 및 복습하였다. 교재를 정독하고 나면 A4 종이에 나만의 요약 정리본을 만들어 그것을 반복해서 바라보았는데 심지어 본가를 내려가는 버스와 기차 안에서도 정리 요약본을 읽었다. 종강을 하던 날 2학기 동안 적었던 A4 정리본을 전부 훑어보았는데 양이 꽤 돼서 너무 뿌듯했다. 전처럼 미루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재밌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2학기 첫 시작부터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중간고사를 더욱 잘 볼 수 있었을 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점이 나오는 날, 태어나서 가슴이 그렇게 떨렸던 적이 없다. 조금 오바해서 수능보다 더 떨렸다. 정각이 되자마자 성적을 확인하였고, 정말 울컥했다. 3.61이라는 학점을 받았다.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재수강한 과목이 있었기에 1학년 평균 학점이 3.45로 상승하였다. 바라던 대로 복수전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됐다. 특히 공을 들였던 과목들에서 모두 A+을 맞았다.

③ 자기성찰: 활동 후 느낀 점 및 앞으로의 학습계획 및 목표 작성

학습 코칭 활동은 교수님이 직접 제작하신 학습 코칭 노트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노트에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나의 장단점을 써 내려가고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 등을 적어 내려가면서 나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코칭과 상담은 매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교수님은 늘 따뜻한 말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런 교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않아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다. 교수님이 해주셨던 조언들 하나 하나가 정말 큰 동기 부여가 되었다.

학습 코칭은 한 학기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었는데 교수님과 만남을 거듭할수록 나의 학습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코칭 마지막 날 교수님께서 ‘해민이 너는 이제 학습 코칭 안 해도 되겠다. 오늘 일찍 끝내도 되겠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다. 어느새 교수님과 정이 많이 들어서 활동이 끝날 때 조금 아쉽고 속상했다.

학점이 나온 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고 교수님은 수고했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다. 솔직히 목표 달성에는 성공하였지만 높다고 말

할만한 학점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 아쉽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갈 곳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오히려 이 학점이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점이 나오고 나니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이번 2학기 때 교재와 학습 자료 정독을 정독하고 나만의 요약 정리해본 만들어 공부하였는데 그 방법이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졸립을 참지 못하거나 정신력이 흐트러져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다보니 수업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과목에서 C+의 성적을 받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다져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조선대학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제출자: 나** (인 또는 서명)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